

십자가 나무의 열매 1.속죄

본문: 뱀전 2:24-25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창 3 장). 결과는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며 맺어 놓은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속죄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본문 24 절 전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on the tree 또는 on the cross (혈, 크실론, 나무)

희생의 제물이 된 예수님과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부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속죄의 열매는 풍성하게 주렁주렁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미 마련된 속죄의 열매를 따먹어야 할까요? 왜 자주 따 먹을수록 좋을까요?

1.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본문 24 절 중반 “...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

이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죄를 짓더라도 죄값을 치루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식물도 물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악평하며 싫어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 21:7-9).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나무의 속죄의 열매를 따 먹으며 죄값을 치루지 않고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2.둘째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 절 중반 “...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

물론 완전한 스스로의 “의” Righteousness 는 아닙니다. 다만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어 옳을 “의 義”는 내가 양 羊아래 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 “아 我”는 손(수 手)에 창(과 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에 창을 든 내가 양을 죽여야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은 누구인가요?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저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나무의 속죄의 열매를 따 먹으며 의롭다 함을 받으며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3.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길을 찾게 되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5 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은 그 특성상 앞길을 인도하는 목자 없이는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범죄한 이후로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치 앞일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고, 죄와 함께 살았으며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나무에서 매달려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요 10:3).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그의 양인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양떼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양떼인 우리들이 편안히 쉴 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 23:2).

우리 모두 십자가나무의 속죄의 열매를 따 먹으며 우리 영혼의 목자시며 감독자되신 주님 안에서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는 이미 구약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장차 올 천국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명수강 옆의 나무 열매들을 환상에서 언급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겔 47:12) 참고) (히, 에즈, 나무)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 예수님의 속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생명의 열매들을 먹으며 삽니다.

“...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tree of life (본문과 똑같은 헬라어 ‘크실론’을 사용함)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11 월 새 달을 맞이하여 풍성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서 맺어진

예수님의 속죄의 열매를 먹으며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또한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 드림-